

< 2010년 11월 >

32번째, 농기구이야기

알곡을 떨어내는 탈곡연장 ‘도리깨’



<도리깨> 길이 171cm, 농업박물관 소장.

NH NongHyup

농업박물관

1. 도리깨의 개념

도리깨는 보리·콩·깨·조 등과 같은 곡식의 이삭이나 껍질을 두드려 그 속에 있는 알곡을 떨어내는데 사용하는 탈곡용 농기구이다. 조선시대의 농서인 《농사직설》의 ‘고로(耒耜)’, 《과농소초》의 ‘연가(連枷)’, 《농정촬요》의 ‘도리편(兜里鞭)’ 등은 도리깨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을 지역에 따라 ‘도루깨’, ‘돌깨’, ‘도깨’ 라고도 불렀다.

2. 도리깨의 형태 및 용도

도리깨는 도리깨장부·도리깨치마·도리깨꼭지·도리깨아들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부는 손잡이, 치마는 여러 가닥의 아들을 묶어 놓은 끈, 꼭지는 장부와 아들을 연결한 부분, 아들은 꼭지 끝에 나뭇가지를 매달아 놓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명칭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용방법은 사람이 양 손으로 장부를 잡고 높이 들어서 도리깨아들을 휘둘러 곡식의 이삭을 내리쳐서 낱알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학적으로 볼 때 단순한 막대기만 가지고 두드리는 것에 비해 자루를 높이 들어 도리깨아들을 돌려서 내리치기 때문에 돌아가는 회전력에 내리치는 힘이 더해져서 때리는 효과가 훨씬 커지게 된다.

자루는 뿌리째 켄 2년생 이상의 대나무로 만들어야 재질이 단단하고 파손이 적다. 그리고 반드시 뿌리 부분에 둥근 구멍을 뚫어 화살 모양의 원통형 꼭지를 끼워야 한다. 뿌리 부분이 아니면 꼭지의 회전마찰로 인해 자루가 쪼개지거나 갈라져 꼭지가 빠져나오게 된다. 꼭지는 마찰로 인한 마모를 줄이기 위해 참나무로 만들되, 자루의 지름보다 2.5배쯤 길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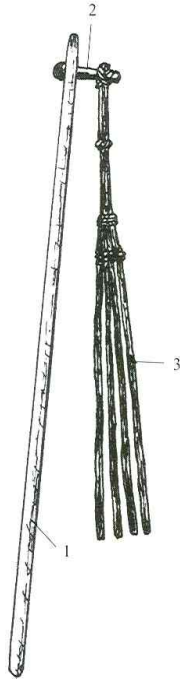
치마는 꼭지를 끼우고 나서 끝부분에 묶는데, 꼭지의 끝부분을 납작하게 깎아 치마와 꼭지의 접착 부분을 넓혀야 한다. 이때 치마의 끝부분을 반으로 살짝 쪼개 꼭지를 직각이 되게 끼운 다음, 가죽이나 칠당굴 또는 닥나무 껍질을 이용하여 단단하게 묶는다. 그리하면 꼭지와 치마가 고정되어 서로 걸돌지 않게 된다.

치마는 뿌리째 켄 2년생 이상의 대나무를 쪼갠 뗏가락으로 만든다. 치마 길이는 자루 길이의 $\frac{2}{3}$ 내지 $\frac{3}{4}$ 이 되게 한다. 치마를 묶을 때는 뗏가락 2개를 같은 방향으로 눕혀 세워서 묶는다. 그렇게 만든 묶음 2개를 다시 서로 등지게 묶고 가운데 하나를 더 넣는다. 그러면 뗏가락은 5개가 되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각각 벌어지게 된다. 치마의 끝자락이 뿌리 부분이어야 타작으로 인해 부서지거나 쪼개지지 않는다. 그리고 도리깨가 돌아가면서 치마의 중량에 의해 곡식 낱알이 잘 떨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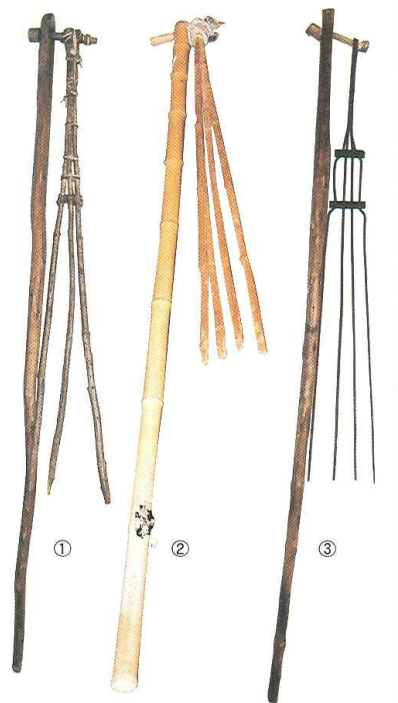
자루 끝에 연결되어 있는 타곡부인 도리깨아들은 3개의 물푸레나무를 새끼 또는 노끈으로 납작하게 엮어 만든다. 물푸레나무를 써야 나무가 단단하고 야무져 갈라

지지 않는다. 만들기 쉬우면서도 능률이 많이 올라 오늘날에도 산간 지역의 일부 농가에서 쓰이고 있다. 장부 길이는 약 3m이다.

<도리깨의 부분 이름과 종류>



1. 도리깨장부(손잡이)
2. 도리깨꼭지
3. 도리깨아들(휘추리)



1. 물푸레 아들
2. 대 아들
3. 쇠아들



<기산풍속도>, 타작

2~3가마를 탈곡할 수 있는데,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보통 서넛 이서 한사람은 메기고 나머지는 때리는 협동 작업을 했다.

탈곡에 동원되는 전통 농기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도리깨를 이용하였다. 도리깨는 타작할 때만이 아니라 저습지 개간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데에도 이용되었다. 다만, 호마(胡麻)는 베어낸 후 잘 말려서 껍질이 벌어지면 작은 나무막대로 두들겨 알곡을 거두는 방식으로 수확작업이 진행되어 도리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였다.

도리깨로 하루 한 사람이 보리

3. 변천 과정에 따른 탈곡기의 종류



벼홀이 | 두 나뭇가지의 한 끝을 동여매어 집게 비슷하게 만든 것에 벼이삭을 끼워 훑는다.

개상 | 타작할 때 알곡을 떠는데 쓰이는 농기구로, 밥상처럼 네모지게 깎은 통나무에 네 다리를 붙이거나, 서까래 같은 굵은 통나무 3~5개를 나란히 잇대어 양쪽에 지름대를 넣거나 새끼줄로 엮은 다음 다리를 붙여서 만든 것 등 여러 형태가 있다.



홀대 | 납작한 쇠뭇을 이빨처럼 나무 판에 촘촘히 박고 그 사이에 벼 이삭을 끼워서 훑는다.

족답식탈곡기 | 사람이 페달을 밟으면서 원통으로 된 탈곡 장치 위에 벼 이삭을 대고 있으면 낱알이 떨어진다.



동력회전식탈곡기 | ^모양의 쇠가 뽁뽁이 꽃혀 있는 원통에 벼단이 자동 공급되면서 낱알, 쭉정이, 벼짚이 분리되어 배출된다.

4. 도리깨의 역사

도리깨가 언제부터 농가에서 이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15세기에 편찬된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인 《농사직설(農事直說)》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만약 습지가 깊어서 사람이나 소가 빠질 지경이면 도리편(都里鞭)으로 풀을 죽이고 씨를 뿌린다." 이 기록을 통해 도리깨는 적어도 15세기 이전부터 사용해 온 것임

을 알 수 있다. 도리편(都里鞭)은 도리깨를 이르는 말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당시 도리깨는 곡식 알갱이를 떠는 외에 습지대의 풀까지 죽이는 등 그 기능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798년 간행된 박지원(1737~1805)의 《과농소초(課農小抄)》에 고려시대의 저명한 학자 이색(1328~1396)이 중국 원나라에 가서 도리깨를 연상하면서 시를 지었다고한 기록으로 보아 고려말 14세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조선 후기 풍속화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조선시대에 매우 보편적인 탈곡 용구였음을 알 수 있다. 알곡을 떨어내는 비교적 원시적인 방식이지만 사람 혼자서도 작업할 수 있고 작업능률도 높아 보편적인 탈곡 용구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다가 1900년대 초부터 발로 밟아 돌리는 기계식 탈곡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차츰 사용이 줄었다. 도리깨로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작업을 하면 콩 8두, 보리 14두 정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없어서는 안 될 거두기용 농기구였던 도리깨는 농기구의 기계화와 더불어 많이 자취를 감추었지만, 요즘에도 산간 지역의 일부 농가에서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광언, 『한국의 농기구』, 문화재관리국, 1969.

국립중앙박물관, 『가을, 유물속 가을이야기』, 2008.

권진숙, 「탈곡도구의 변천과정」, 『한국의 농경문화』 제4권, 경기대학교박물관, 1994.

양효인, 『농가월령가』, 예원, 2001.

박호석·안승모, 『(傳統 農耕의 歷史)한국의 농기구』, 語文閣, 2001.

조흥윤, 『민속에 대한 기산의 지극한 관심』, 민속원, 200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의 미-19』, 중앙일보사. 1985.